

생태명소-세계유산 잇는 2025순천 978m하이킹

자연의 품에서, 세계유산을 오르다! 자연과 사람 잇는 프리미엄 생태하이킹 프로그램

순천시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순천의 대표 생태 명소와 세계유산을 잇는 프리미엄 하이킹 프로그램 ‘2025 순천 978m 하이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 순천 978m 하이킹’은 지난 10월 열린 ‘쓰리픽스 트레일런’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된 후속형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지향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선암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만습지를 연결하는 생태하이킹 켈린지로 조계산(888m)에서 용산전망대(90m)까지 총 978m의 상징적 고

도를 따라, 순천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사람을 하나의 여정으로 엮는다. 하이킹 코스는 송광사에서 장군봉과 선암사를 거쳐 순천만습지 용산전망대로 이어지며, △산과 습지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하루 일정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세계유산 스토리텔링과 생태탐방, 그리고 자연의 맛을 담은 산채 미식 체험 등을 통해 자연 속 웰니스 여행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완주자에게는 978m 켈린지 인증 기념품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978m 하이킹은 순천의

자연과 세계유산,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천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라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도시 순천의 진정한 매력을 알리고, 소규모 프리미엄 관광을 통한 고부가가치 생태관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순천시는 오는 20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한국 문화와 역사 홍보,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우덕현 기자

김제시, 공유재산 일제 대부 갹신계약 추진한다

갹신 대상 892필지, 2030년(5년간)까지 계약 연장

김제시는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행정운영을 위해 대부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 갹신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갹신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토지 및 건물)인 시유재산과 도유재산(도 위임재산)으로 총 892필지 약 4만㎡ 규모다. 갹신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연장된다. 시는 11월 초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들에게 갹신계약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읍면동 이동장 회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갹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는 12월 19일

까지 시청 회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1만㎡ 이하의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김제시 거주자의 경우, 신청 시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갹신 포기자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복구 후 반환 해야하며, 무단사용 시에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갹신 기간 종료 후 미계약 재산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실제 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공정하고 체

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일제 대부 갹신계약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원 확보를 위한 기반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10일 새만금신항 행정구역 결정 관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개최했다.

새만금신항의 합리적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법리적 검토와 김제시 관할권 확보 전략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번 용역을 통해 도출된 ▲새만금신항 관할권의 이익형량 원칙,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상구역 쟁점 검토 결과, ▲김제시 관할의 법적 타당성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대응 전략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김서주 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고창에 착공!

“희망찬 미래여는 마중물”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서 3500억 원 규모 사업 본격화



전북 고창군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가 10일 고창군 고수면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착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조만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국회의원, 윤준병·이성운 국회의원, 김성수·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도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임원급 관계자들도 대거 현장을 찾아 사업 출발을 축하했다.

또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 허상희 부회장, 실시설계를 맡은 무영건축 송도근 사장, 감리를 담당한 한미글로벌 김용식 사장 등도 자리해 착공식의 뜻깊은 순간을 함께 했다.

고창군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영상을 통해 “이번 사업은 고창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뜻깊은 투자이자,

전북 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는 고창군신활력산업단지 18만1625㎡(축구장 25개 규모) 부지에 건립되며, 자동차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 물류센터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호남권 대규모의 첨단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당초 고창군과의 투자협약 당시 30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시설계를 맡은 무영건축의 최종 설계와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시공 확정 과정에서 총사업비 35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특히 삼성전자가 계획하는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자동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장비의 연동이나

유지보수 등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연스럽게 로봇, 컨베이어 등 자동화 장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와 이전까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통한 ‘고창 관내 소비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수백명에 달하는 건설 인력과 장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창 관내 숙박시설·식당·주유소 등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군에선 이번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민선 8기 고창군 투자유치 기업들의 본격적인 사업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활력산업 분양계약을 체결한 ㈜지텍은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력반도체 웨이퍼 소재 등을 생산하며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기업이다. ㈜지텍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3만9010㎡(1만1800평)에 내린 상반기부터 21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식품원료 제조업체인 ㈜에스비푸드도 10월 사업장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해 연말 설비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스비푸드는 고추종합유통센터를 매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식품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변화와 도약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영미 기자

공공시설 활용 2026 전북 마이웨딩 참여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무료 개방해 소규모·실속형 결혼식을 지원하는 ‘2026 전북, 마이웨딩’참여자를 모집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가 결혼을 늦추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으로, 응답자의 75.5%가 이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전북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예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전북도청 잔디광장, ▲전북도립미술관, ▲전라감영 등 지역 상징성과 접근성이 높은 도내 공공시설 3곳을 우선 개방해 진행된다. 2026년에는 시범운영으로 예비부부 10쌍을 선

정하며, 참여 자격은 예비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전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된다.

선정된 이들은 예식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도가 공모로 선정한 결혼전문 협력업체를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S·D·M)부터 공간 연출, 현장 운영까지 결혼 준비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식 공간별 콘셉트도 차별화된다. 도청 잔디광장은 자연 속 야외 예식, 도립미술관은 독창적인 연출이 가능한 예술형 예식, 전라감영은 전통미를 살린 지역문화형 예식 연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대표누리집 내‘전북,

마이웨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식 일정 예약은 안내페이지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전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과도한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청년층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시범 운영 결과 및 도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확대와 지원 내용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영평 실장은 “청년들의 결혼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의 공간을 생활 속 열린 예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비전 선포해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10일 KTX 남원역 광장에서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남원의 미래 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역세권 개발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역세권은 ‘25. 8. 7.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 산업 중심의 융복합 산업 허브와 복합환승센터 및 정주·문화·상업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컴팩트

시티 조성을 추진한다.

이날 행사에는 투자협약기업, 남원시, 남원시의회, 유관기관, 기업인,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원역세권 개발이 지역 산업과 도시 구조 변화의 전환점이 될 것임에 공감했다. 남원시는 남원역 일대를 중심으로 ① 미래전략산업 플라자(FIP) 조성(드론 R&D·실증·비즈니스 쇼케이스) ② 지역특화산업 플라자(RIP) 조성(스마트농업·바이오 R&D 플랫폼) ③ 어울림 문화거리 조성(제류형 관광·상권 활성화 공간) ④ 복합환승센터 구축(달빛철

도·전라선 연계 남부권 교통거점) 등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산업·생활·관광이 연계된 복합 도시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KTX 남원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통해 총 6,5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 3,000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3,2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드론·스마트농업·바이오 중심의 산업전환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청년 정착 기반 마련 및 원도심과의 상생을 포함한 도시 활력 회복 효과가 예상된다. 남원시는 2025년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 절차를 시작으로 2026년에 지구지정 및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7~2028년에 SPC 설립 및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한다. 2028~2029년에 FIP·RIP 등 핵심 상부산업시설을 건립하고, 2030년 이후에는 시설 운영과 재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역세권 개발은 도시의 구조를 바꾸고, 산업과 문화, 사람과 기회가 모이는 새로운 남원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며 “오늘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신승민 기자

전국 최대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 열렸다

시청 일원서…장애인·시민 5000여명 복지협력 다짐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복지 박람회’가 광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광역시에는 시청 일원에서 장애인과 시민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장애인체육회가 협력했다.

‘모두의 돌봄! 모두의 JOB! 모두의 건강!’을 주제로 열린 이날 박람회에는 지역 130여개 장애인복지 기관·단체가 참여해 돌봄·일자리·건강·교육·체육 등 5개 분야의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장애인생산물 판매, 일자리 상담, 건강검진, 재활운동 체험,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 복지종사자, 시민 등 참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복지도시 광주’를 체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 부스를 둘러본 한 시민은 “장애



인복지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모두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했다.

개막식에서는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장애인예술단 공연이 진행됐다. ‘정책 토크쇼’와 대한민국 조리명장

안우성 셰프의 특강 ‘문턱없는 식당, 모두의 식탁’이 열려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넓혔다. 강기정 시장은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권일 기자

한우 번식우 기반 확대 시범사업 평가회 개최해

장수군은 농촌진흥청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일환으로 번암면 유정리 대화농장에서 축산농가와 축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우 번식우 기반 확대 시범사업 성과공유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3개 한우농가에 한우의 번식 효율과 송아지 생존율 향상을 위한 농촌진흥청의 최신 축산 기술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사업 내용은 코팅 베타카로틴 번식시험제 급여를 통한 수태율 개선과 원적외선을 이용한 송아지 집중관리실 설치 운영 등이다.

우선 한우 번식우의 수태율을 높이기 위해 코팅 베타카로틴을 활용한 보조사료를 공급하고, 전문가 맞춤형 사양관리 컨설팅을 병행했다.

또한 번식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원적외선 시스템을 이용한 송아지 집중관리실을 추가 보급해 동물복지 차원의 체계적 관리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집중관리실은 출생 직후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를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온·습도 자동조절 및 위생적 사육공간을 확보해 완숙 송아지의 회복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송아지 육성률이 높아지고, 한우 번식우의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평가

회에서는 참여 농가들이 각자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코팅 베타카로틴 번식 참가제 활용의 효과성과 송아지 집중관리실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현장사례를 발표했다.

참여 농가들은 “전문가의 사양관리 컨설팅과 맞춤형 시설 지원으로 수태율이 개선되고 송아지 생존율이 높아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최훈식 군수는 “번식능력 개선과 어린 송아지 육성률 향상으로 장수한우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가능한 장수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주 기자